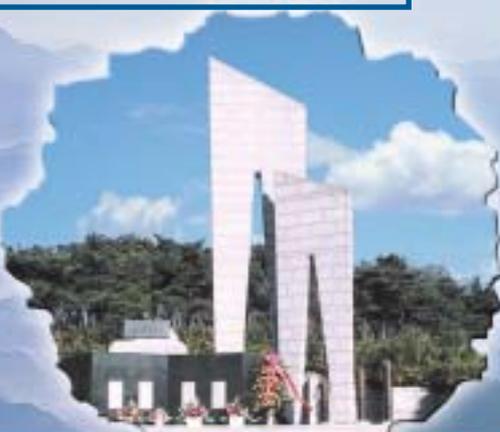


2010 1



햇볕

2·28 제9권 4호 통권36호

신년사 2·28민주운동 正體性 확립 관련 根幹事業 推進에 最善을 경주

특 집 입학사정관제를 전망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

특별기획 2·28민주운동 제50주년사업



사단
법인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www.228.or.kr

2·28의 함성은 영원한 건각이다

문인수

하늘 아래 늘 산이 있고 바다가 있다.
땅의 꼭대기에, 땅의 끝에
세상을 보고 듣는 그 큰 뜻이 불렀나니.
여기

자유 수호와 독재 타도를 위해 일어난 최초의 울력,
이 나라의 햇불이여, 요원의 불길이여
정의의 사도들 저 거리를 달렸다.

1960년 대구 학생의거, '2·28 민주운동'
세월은 흘러도 역사는 언제나 오늘에 빛나는 것,
사람은 가도 그날의 정신은 다시금 청춘인 것.
젊은 탐으로 선
달구벌의 두 다리, 2·28의 함성은 영원한 건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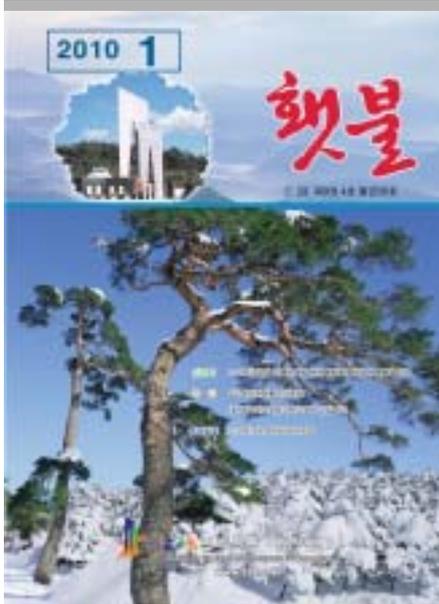
보라, 지금도 으쓱으쓱 비슬산은 치솟고
지금도 꿈틀꿈틀 낙동강은 나아간다.
저 힘은 충천이요, 저 대열은 장장 일도창해다.

기억하라, 불멸의 스크럼!
땅의 꼭대기로, 땅의 끝으로 내달나니.
거기
한없이 깊고 푸른 섭리의 하늘이 있다.



문인수

1945년 경북 성주 출생. 1985년 시전문지 '심상'으로 등단. 시집으로 <빨>, <회치는 산>, <동강의 높은 새>, <쉬!>, <배꼽> 등 7권이 있으며, 대구문학상, 김달진문학상, 노작문학상, 금북문화예술상, 편운문학상, 시와시학상, 한국가톨릭문학상, 미당문학상 등을 받았다. 제8대 대구시인협회장 역임.



▶ 표지 사진 - 설 송
작가: 古松 張 國 鉉

제9권 4호 통권 36호 겨울
발행인 / 안 인 욱
편집인 / 김 약 수
인쇄 / 2010년 1월 20일
발행 / 2010년 1월 20일
편집위원 / 김상규, 이방현, 장영향, 김광주,
서정일, 박명철, 김동환, 김종인
발행처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700-803 대구광역시 중구 남문3길 6(남산1동 843번지)
(문애서림 4층)
Tel. (053)257-0228, Fax. (053)254-0228

e-mail : 228demo@hanmail.net
homepage : http://www.228.or.kr

인쇄처 / 신문사(053)474-9000

햇볕

2010년 1월 제9권 4호 통권 36호 겨울

축 시	02	2·28의 함성은 영원한 건각이다 / 문인수 시인
신 년 사	04	2·28민주운동 正體性 확립 관련 根幹事業 推進에 最善을 경주 / 안인욱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2·28 특집	08	입학사정관제를 전망한다 / 손중현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
	13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 / 광경숙 대구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18	워털루역과 2·28역 / 서정일 영문학박사
특별기획	23	2·28민주운동 제50주년사업
	25	2·28민주운동 제50주년 기념식 계획
문예광장	26	풀의 말 / 피귀자 수필가
	28	무심別曲 / 강문숙 시인
자유기고	30	2·28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 정사식
	32	2·28紀念 圖書館 建立에 즈음하여 / 권국현
	34	2·28민주운동 5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 이방현
	36	합심하여 노력하는 마음... / 김명환
2·28 일지	3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3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2	2·28기념탑 안내표지판 설치 예술문화청달 공모 예총문화상
	43	햇볕지 36호 편집회의, 2·28 교재 감수회의
	44	2·28 산악회, 2·28 업무 활동
회원가입현황	45	2009년도 회원가입 현황
	48	기관 회원가입 현황

※ 게재된 글은 본 사업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원고를 다음호에 게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회안내

- ※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을 돕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 정신의 계승발전과 우리 나라 21세기 민주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 2·28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영구히 전산입력 보전됩니다.
(학생 1,000원, 개인 10,000원, 단체 100,000원 이상)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8-05-002264-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본 법인에 납부하는 회비 및 협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1-54호)

新年辭

2·28민주운동 正體性 확립 관련 根幹事業 推進에 最善을 경주



안 인 옥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2 009年(己丑)은 歷史의 場으로 사라지고 2010年(庚寅) 희망찬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시·도민과 회원 여러분의 健勝과 사업이 日益繁昌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지난 己丑年에는 국가비전을 “선진일류국가” 건설로 하고 국정지표를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설정하여 추진한 한 해로 국내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善終)하시고,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유명(幽明)을 달리하셨으며, 정치적 상황으로 국민들이 정신적·경제적으로 불안했던 한 해였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에 ‘동남권 R&D 역량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도시철도 3호선 착공,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등의 사업추진에 행정력을 경주한 한 해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세계경제 위기에서 모범 탈출국으로 선점, G20 정상회의 유치, 원전수출국으로 부상, 나로호 궤도진입실패, 양용은, 신지애, 김연아 등의 세계정상 정복이 있었고, 국외적으로는 국제 경제위기 확산, 신종플루, 중국·미국과 G2 시대, 오바마 대통령 취임, 하트야마 정부 출범 등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5대 국정지표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로 설정하고 시대정신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두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10년을 “서민생활 안정과 성장동력 창출”에 역점을 두고 ‘행복대구 구현, 메디시티 대구 건설, 지식기반 경제체제 확립, 녹색도시 구현, 문화와 교육이 함께 하는 고품격도시 구현,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시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시정 구현’에 총력을 매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010년 2월 28일 맞이할 제50주년을 대비하여 2009년에 시·도민과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각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력으로 2·28민주운동 정체성 확립 관련 근간사업 추진에 최선을 경주해 왔습니다.

2·28민주운동이 그 동안 歷史的 正位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歷史的 價値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비하(卑下)된 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다른 민주화운동과 차별화되어 법적인 인정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마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월 14일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민주화운동에는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이 정의되고,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등은 시행령에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건립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비 100억원(국비 80억원)을 들여 2011년 완공될 예정이며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년 동안 시·도민과 회원들의 성원으로 본사업회에서는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추진해서 성과를 거양한 면도 있고, 계획했던 사업들을 이룩하지 못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념사업회의 노력부족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총체적인 원인이 상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이 요청되고 시·도민의 성원과 격려와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됨을 밝힙니다.

2009년 본 사업회에 적극 찬동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신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시교육청 산하 교육전문직·학교장·교사·행정직원, 고등학생, 퇴직교원 등 9천 6백 6십여 회원, 본회 임원, 광고를 협조해 주신 분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과 관계공무원, 시의회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 그 외 도움을 주신 분, 특히 법개정과 예산과 관련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해봉 국회의원과 지역출신 국회의원께 본회 4만 3천여 회원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분과협의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2·28민주운동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발발했던 최초의 학생운동이자,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우리 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임에 그 역사적 정체성과 가치성과 그 당시 학생 및 시·도민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잘못된 가치판단과 오류를 바로 잡아 민주화가 바르게 발전하도록 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을 당시의 정치적·경제적·외교적 현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정부관료들, 정치인들이 역사성과 가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탄생하게 된 動因이 정확하게 각인되지 않은 실정이며, 국민과 학생들에게 이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교육해야 하는 필연성과 당위성이 확립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방정부와 관련교육기관의 노력이 百方으로 요구됨을 관계관은 명심해야만 민주주의가 한층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고, 역사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과거일로만 인식되지 않고 삶을 비추어 주는 거울로 삼아 살아 있는 과거이어야 교훈도 되고 문제 해결의 지혜도 될 수 있습니다. 텔러노 프랭클린 루즈

벨트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세계어디서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역사가 추구하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자유와 평등이라면, 2·28대구민주화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더 이상 미아로 천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민주운동사의 제위치에 자리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회는 2010년에 맞이할 2·28민주운동 제50주년을 期해서 2·28민주운동 正體性 확립관련 根幹事業 推進에 최선을 경주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 지원, 지방정부의 지원확대, 민주운동기념사업회간 차별화 해소, 회원배가 및 관리의 체계화,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정통성 확립, 기념회관 건립, 학생교육용 교원활용자료발간, 2·28민주운동정신 선양사업(기념물, 2·28 문화존 설치, 2·28路 지정, 2·28驛 지정, 도로표지판 설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기관과의 유대강화’ 등이 당면 현안 사업들입니다.

이들 사업 완성을 위해서는 본회 회원 및 임원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국민적 차원의 성원과 지원이 필수적이고, 지원의 근저에는 대구시민과 경상북도 도민의 총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이 공고(鞏固)해야 하고 관련 행정부와 관계관의 관심과 배려가 요청됨을 간과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庚寅)은 국가적 幸運이 도래하여 강구연월(康衢煙月) 성대(盛代)에 국민과 개인의 삶이 보다 향상되고 소통과 총화로 민주주의 성숙과 자유와 평등을 만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빌고 시·도민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祈祝합니다.

2010年 1月 日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안 인 옥

입학사정관제를 전망한다



손 종 현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제가 장차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해 본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진단에서 나오는 법이다. 사정관제가 제도 도입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고, 겨냥한 바 그 방향 위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할까 등에 대해 약속하고자 한다.

1. 기원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회는, 수능시험점수를 거의 유일한 선발척도로 적용하여 석차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선발제도를 운용하다보니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교육과정적 연계가 끊겼고 교육체제의 계통이 상실됨으로 인해 공교육 붕괴가 극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처방하는 정책방안으로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주창하였다.

당대 교육혁신위원회의 기대와 전망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고교-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를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체제의 계통성을 복원한다는 것이었다. 사정관제의 본래 취지가 이런 것이다.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똑똑한 아이 골라 뽑는 것이 그 주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겠다.

2. 도입 : 자체의 제도적 한계 잉태

2004년 8월, 교육혁신위원회는 제53회 대통령 국정과제회의에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혁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 개혁 방안은 경로별선발제, 교육이력철 내신 제도, 수능시험 성격 변화 및 9등급제와 함께 입학사정관제를 담고 있었고, 네 가지 제도가 하나의 패키지로서 동시에 도입되어 함께 작동해야 성공할 수 있는 방안임을 분명히 하였다. 기실 입학사정관제도는 최소한 동일계전형(특목고 포함)은 경로별선발을 한다는 준칙과 함께 교육이력철 내신제, 수능등급제와 동시에 제도화될 때 “학교교육 정상화”를 견인하는 제도적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각의 정책과제가 분리된 개체로서 도입되거나 한두 가지 제도가 생략된 채 도입되면서, 그 자체 제도적 한계를 잉태한 채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2004년 10월 발표된 교육부의 개선안에는 경로별선발과 교육이력철 개념이 빠진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예고되었고, 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과부는 2006년 8월,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부터 매년 기본계획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하였다. 특히 수능시험의 영향력 축소를 전제로 할 때 사정관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수능등급제를 폐지하는 이 율배반적인 정책조치를 취한 바 있다.

3. 확대 추세

정부에 의해 2007년 10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지원사업은 2008년에 40개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에는 47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지원사업 예산규모는 07년에 20억 규모로 시작되었으며, '08년에 158억원, '09년에 239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정부의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임 사정관수도 07년 42여 명에서, 08년 218명, 09년 360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전형의 선발인원 역시 첫 해 254명에서 08년도에 4,555명, 09년도에는 20,69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도 선발학생수 20,695명은 지원사업 해당 대학 모집정원의 10%를 차지하고, 전체 대학 정원의 5.4%를 차지하는 숫자다. 2011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에서도 선도대학 및 계속대학들은 그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정관의 역할 또한 크게 증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입학사정관제전형을 기획·실행하는 대학도 점점 늘고 있다. 그 숫자가 현재 60여 개 대학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제도 도입 2~3년 차에 지나지 않지만 입학사정관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4. 정부의 단계적 정착 방안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듯하다. 정부는 2009년을 입학사정관제를 ‘내실화’ 하는 해로, 2010~2011년을 ‘확대’ 하는 해로, 2012년을 ‘정착’ 시키는 해로 설정하고 있다. 단계적 정착방안을 마련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정책적으로 집중하고 있기에 현정부 임기 내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정부는 2009년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선도대학 육성 방침을 실행하였다. 15개 대학(대규모 종합대학 10개교, 특성화 대학 5개교)을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학교당 6~19억원을 지원하였다. 또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공모를 통하여 5개 기관(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을 선정하였고, 5개교에 총 1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각 양성기관은 130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 도합 39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입학사정관제 확대기’인 2010~2011년에는 선도대학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사정관이 합격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그 역할의 증대를 견인할 방침이다. 이 맥락에서 사정관제를 활용한 선발인원 확대와 사정관 수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또 전형자료를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학생부 기록 충실, 학교정보 공시, 진학지도교사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 정권의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을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기’로 설정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전국 대학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학의 특성과 전형의 특성에 따라 한국형 입학사정관제가 정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 현단계에서 노출되는 문제점

제도 도입의 취지가 달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원래 의도한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되묻는다면, 긍정적인 답을 내리기 어렵다.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이끌고 결과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시작되었지만 현재로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난망이고, 어떤 학생을 어떻게 골라 뽑을까 하는 선발의 효율 문제로 귀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하면 선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하나의 특별전형 방법론으로 기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목표·내용에 따른 선발의 타당화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형방법의 다양화 차원에서 ‘특별전형의 한 가지 방법’에 머물러 있다. ‘화려한 아이’, ‘똑똑한 아이’, 가려 뽑기의 기제로 활용하는 김새를 보이면서, 대학교에 따라서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를 암암리에 허용하고 특목고 학생을 싹쓸이하는 제도적 장치로 악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사회적 경고음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필요하다.

6.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토대

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고교·대학간 교육과정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것이다. 이를 만족시킬 때, 도입 취지를 구현하는 유효한 교육제도 혹은 선발시스템으로 정착할 것이다.

첫째, 고교와 교사는 ‘기록가능한 교육활동’을 한다. 고교와 교사는 교육활동을 기획·실행하고, 그 교육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록한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교과 지도는 물론 교과기반 독서활동과 진로지도활동에 대해 기록한다. 교사는 교육기획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 전문성에 대해 평가받는다. 물론 ‘기록가능한 교육활동’을 보증하기 위해 정부는 제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대학은 ‘졸업의 관점’에서 선발방침을 숙고한다. ‘어떤 능력을 어떻게 키워서 졸업시킬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것에 적합한 선발방침을 기획한다. 이 맥락에서 대학은 반드시 졸업프로그램과 과정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졸업프로그램과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학 전공단위는 교육과정 운영체가 되어야 한다. 전공단위는 교육과정목표를 설정하고, 선언하고, 그 교육과정 운영을 공개한다. 고교 교육과정 활동에 대한 기록을 전형자료로 읽어서 전공단위 교육목적에 타당한 선발을 실행한다. 이제 대학은 전공단위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발언하고 나선다.

이 두 가지 조건은 ‘계통을 살린다’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와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경험적으로 유효한 실체라는 점에서, 참이며 합목적적이며 교육적이다. 이 양자의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기능할 때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 정상화에 복무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7. 전망 : 미래의 물결

입학사정관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교육제도이자 선발시스템이 되었다. 이미 대세가 되었고, 따라서 미래의 물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올바른 방향 위에서 건전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선 시급하고도 ‘범주적으로’ 요청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를 이끌고 지도하는 중심 지도부가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장기 전망의 지적 지도력을 가진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도부가 명료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직을 장악하고 이념의 뜻대를 세우는 지도부가 제정신을 차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 지도부는 ‘감리’ 하듯이 관리하는 정책적 집중을 발휘해야 한다. 어떤 제도든지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일이 쉽지 않다. 갈등 구조가 많은 제도일수록 많은 문제, 불만, 저항을 수반한다. 지도부이기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낸다. 대학, 교사, 학부모의 비이성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둘째, 사정관은 전문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사정관의 전문성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시에 입학전형의 공정성 수칙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도 국립대 관료주의 행정과 사립대학교 이기심에 반하여, 목이 안 잘릴 정도만큼 살짝살짝 ‘정도(正道)’에 대해 발언해야 한다.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고 해서 입학사정 전문가가 되고 실천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리에 정합하는 실체와 실천을 프로그래밍한다. 진정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자(story teller)가 된다.’ 이 명제는 사정관이 진짜 전문성을 획득하는 가와 연관된 중요한 과제다.

셋째, 언론의 보도 태도가 절제되어야 한다. 사건 보도식 태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전형의 폐해는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사건을 즐기듯이 하고, 침소봉대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서구사회는 교육문제를 두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보도하지 않는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이 제도가 지닌 합리성을 살려내는 노력을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곽 경 속
대구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현 정부에서는 사교육비¹⁾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친서민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그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교육청도 사교육비 절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전담팀을 신설하여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입시 및 내신 부담 경감,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직업기술교육 강화,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등 6가지 항목의 사교육비 경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학력격차로 나타나지 않도록,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최근 사교육비 조사 결과(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연도	2001	2003	2005	2007	2008
사교육비 (단위 : 원)	10조 6634억	13조 6485억	17조 6774억	20조 400억	20조 9095억

1. 공교육 내실화의 지속적인 추진

사교육보다 나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체제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마이스터고, 기숙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학교를 다양화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학교의 체제와 체질이 개선되지 않고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수립·운영하고 있다.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학교 자율화 확대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인사 등 핵심 권한을 부여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6개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교과교실제 도입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 이동 수업	선진형 2개교, 과목 중점형 10개교, 수준별 수업형 14개교를 교과교실제 운영
수준별 이동 수업	교과별로 수준별 학급을 편성 학생 학습선택권을 부여 이동 수업	전체 학교 중 91%가 실시 기존학급+1체제로 편성 운영 학교에 교과교실 확보 및 리모델링비와 강사운영비 지원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도입	교원의 능력 개발 전문성 신장 교원들을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학부모가 평가	2009년 상반기 60개, 하반기 58개교를 교원능력개발 평가 선도학교로 지정 운영. 2010년부터 전면 실시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및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 지원	총학생의 99%가 평가에 참여. 46개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 학습보조 인턴교사 117명을 배치.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격차 해소	학교 영어교육을 내실화. 지역간·계층간 영어교육 기회 균등 영어 교육격차 해소	영어교사 연수(545명), 영어회화 전문 강사 확보(222명),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156명), 영어교사의 영어공인시험 응시(400명), 저소득층 학생 Talk 프로그램 운영(17개교), 영어캠프(1,317명)

2. 입시 및 내신부담 경감

사교육 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대학입시와 과학고·외국어고와 같은 특목고 진학을 위한 과도한 경쟁 때문이다. 이의 해소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위 학생들의 경쟁을 유발하여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특목고의 입시제도와 올림피아드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수립·운영하고 있다.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입학사정관제 정보제공 상담을 통한 진로 진학 지도	입시설명회(11회), 교사연수 및 워크숍(2회), 입학사정관제 설명회(2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연중 실시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특목고의 설립취지에 부합,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전형방법 도입	상설장학 실시, 향후 입학전형 기간 중 시험장에 임석관 파견

과학올림피아드 및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 개선	과학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학교장 추천 및 학회 심사로, 영재교육대상자 설발을 영재교사의 발굴 및 학교추천위원회의 추천	영재교육협의회 운영(4회) 및 영재교사 연수 실시, 영재학급 설치 추가 승인, 영재학급용 교수 학습 자료 개발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 경감	중·고등학교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를 공개 교사들의 책무성 강화	중·고 중간, 기말 고사 문제 공개, 일반계고 정기고사 평가 문항 분석 환류

3.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현존의 사교육을 공교육 체제가 흡수하기 위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운영의 틀을 잡아가고 있는 방과후학교, 독서교육, 논술교육, 학교예체능교육을 활성화하고, EBS 수능 강의, IPTV, 사이버 가정학습 등의 사교육 대체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지원·운영하고 있다.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추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수요에 부응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우수학교 발굴	22개의 ‘사교육 없는 학교’를 선정·운영 이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의 자율성 증대
방과후학교 교육서비스 강화	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를 강화,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초등학교에 학부모코디네이터 활용담당자의 업무 경감, 학부모(150명)·대학생(840명), 군장병을 멘토링으로 활용, 148,452명에게 36만원씩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교육-돌봄 서비스 및 저소득층 지원	초등 보육교실을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종일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맞춤형·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7개의 종일돌봄교실 운영학교를 지정 시범 운영, 220,000명 이상에게 자유수강권 지원
EBS 수능 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	저소득층 고등학생 EBS 수능 강의 시청 자기 주도적인 학습기회 제공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3학년 저소득층 자녀 중 케이블 TV 수신료 1,692명에게 지원
IPTV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IPTV를 교육적으로 활용 학생 맞춤형 서비스 제공	IPTV를 시청을 위한 초·중등 학교 인터넷망 5010Mbps로 고도화, 3개교 시범연구학교로 지정 운영
사이버 가정 학습 내실화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 개발·제공, 학교 단위 온라인 학습 체제 구축	2,935학급의 대구e-스터디를 운영, 202,783명 참여, 초·중등학교의 75%가 학교단위의 교수도움센터를 구축하여 교실 수업 지원
과목별 중점학교 (과학, 예체능) 확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과학, 예술 교과 중점학교 확대 운영, 과학과 예체능 관련 사교육 흡수	과학중점고등학교 2개교, 예체능집중이수과정운영고 2개교, 일반계고 예체능과정운영고 1개교 운영
자율학습의 내실화	학교 여건에 적합한 자율학습 운영 사교육을 공교육 체제로 흡수	희망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독서교육 강화	생활 독서, 생활 글쓰기, 책쓰기를 통해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 배양	아침독서 10분 운동 삶쓰기 100자 운동, 109개의 책쓰기 교육 확대 실시
학교논술교육 활성화	논술 교육 활성화로 사교육 수요 억제	69개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논술 계획 수립 시행. 80%의 학교에서 논술동아리 결성 운영

학교예체능교육 활성화	학교에서의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	학교에서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예·체능 교육을 실시, 특히 초등학교에 609명의 예·체능전담 교사 배치 교과 및 방과후활동 지원
영재교육 활성화	영재교육기반 조성, 영재교육분야 다양화 우수인적 자원에 대한 사교육 수요 흡수	95개의 영재학급 학생4,029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문예·창작 영재교육 신설 운영
우수학생 심화 과학반 운영	과학 우수 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 외 심화학습 실시	중 2,3학년, 일반계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심화과학반을 편성 운영(100시간이상)

4. 직업기술교육 강화

현존하는 사교육 시장의 대다수는 입시와 내신을 위한 학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계고에 진학하여 좋은 대학을 나와 보다 나은 직장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 때문이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전환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립·운영하고 있다.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	체계적인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	진로정보센터 설치 단위학교에 체계적인 진로 정보 제공, 각종 자료 DLS 구축
마이스터고 등 집중 육성	전문계고의 모델로 마이스터고를 육성 일반계고 진학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억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1차적으로 지정 운영
일·학습 병행 직업 경로 구축	전문계고-전문대-산업체가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	4개 전문계고 55명의 학생이 5개 전문대학, 10개 산업체와 산학협력취업약정
명문 직업아카데미 육성	일반계고 3학년 학생 중 직업교육 희망 학생 지역의 직업 아카데미에 위탁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 실시	261명 학생 체결 대구산업학교에, 194명 학생을 노동부 인정직업전문학교에, 339명 학생을 위탁교육기관에 위탁

5. 학원운영의 효율적 관리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2009. 7. 6.)에 따라 우리교육청은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학원들을 관리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 과제를 수립·운영하고 있다.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학원비 안정화	학원의 교습 시간 자율적으로 단축 운영, 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학원비 공개 시범 운영, 학원비 영수증 발급 지도
불법·편법 운영 학원 등 효율적 관리	학원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고, 법령을 준수 운영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	‘신고포상금제’ 실시 847건의 신고 접수·처리,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운영 46건의 불법 운영 학원 적발

6.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우리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수립·운영하고 있다.은 세부 과제를 수립·운영하고 있다.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시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시·도 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점감	2010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 노력
학부모 인식 전환 및 정보제공 강화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대학 진학 지도 정보 제공, 사설컨설팅에 따른 부담 경감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9월까지 2,600명이 수강),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및 학부모자 원봉사 동아리 운영 공교육 신뢰 회복 및 인식의 전환 유도, 대입상담 콜센터를 운영 대입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

수많은 교육이론가와 실천가들이 해법을 제시하고, 모든 연역법적, 귀납법적 실천 방법을 강구해도 눈에 번쩍 떨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는 점점 증가하여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켜 급기야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입안자, 교육제공자, 교육수요자가 마음과 뜻을 모아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최선이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실현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가족과 더불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위털루역과 2·28역

- '2·28역' 과 '2·28로' 지정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뜻 깊은 문화유산-



서 정 일
영문학박사

“2·28기념사업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의 명덕역이 ‘2·28역’으로 이름이 바뀌면 1960년 2월 28일 수천명의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여 지하철 위의 대명네거리를 따라 달리던 그 함성을 대구시민들은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영국인들은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1066년’과 ‘위털루’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1066년에 에드워드 왕이 아들 없이 사망하자 그 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웨스트색슨의 백작 헤롤드가 쉽게 왕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노르웨이 왕 하랄 3세와 노르망디의 공작 윌리엄은 왕위 상속을 주장하고 침공할 태세를 갖추었다. 노르망디는 사실상 프랑스였다. 헤롤드는 북쪽에서 침략하는 노르웨이군을 물리쳤고 하랄 3세는 전사하였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 며칠 뒤 5천 명의 병력을 이끈 윌리엄이 해협을 건너 남쪽 페번지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헤롤드 왕은 소수의 호위병만을 데리고 서둘러 남쪽으로 내

려가서 급히 병사를 모집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무장도 허술하고 훈련도 받지 않은 농민들이었다. 그는 7천 명의 급조된 병력을 이끌고 윌리엄을 상대하기 위하여 헤이스팅스 산등성이에 포진하였다.

여기서 단 한 번의 전투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압도하고 국가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역사상 희귀한 전투가 벌어졌다. 10월 14일 이른 새벽 윌리엄은 보병과 궁수를 보내 공격했으나 유리한 고지에서 창과 투석기와 손도끼를 휘두르는 해롤드 군사를 당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윌리엄은 거짓 후퇴작전을 감행하여 영국 병사를 언덕에서 내려와 그들을 쫓



워털루역

게 했다. 그때 기병이 급습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의 결정적 패인은 요크셔에 남겨 두었던 주력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해롤드가 공격 시기를 늦추지 않고 급히 서두른 것이었다. 이 전투에서 해롤드의 두 형제가 죽었고 해롤드 왕 자신도 오후 늦게 눈에 화살을 맞고 쓰러져 노르만의 기사들이 살해하였다. 그 중 한 기사가 해롤드 왕의 다리를 자르자 윌리엄은 기사도에 어긋난다고 크게 꾸짖고 그를 병영에서 내쫓았다. 윌리엄은 계속 진격하여 런던을 포위하고 그해 12월 25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왕위에 올라 정복자 윌리엄 1세가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양속 관계는 사실상 여기서 비롯되었다.

노르만 정복으로 인하여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였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정치, 사회, 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프랑스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영어는 글을 모르는 농민이나 노예들이 사용하는 2차언어로 전락하였다. 300년이나 지나서 영국의회에서 의장이 처음으로 영어를 사용하였다. 그 후 두 나라는 영토 분쟁에 휩싸여 100년 동안(1337~1453)이나 전쟁을 치른 끝에 현재의 영토로 확정되었다. 그 결과 서로의 불신감만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두 나라의 끈질긴 인연은 프랑스혁명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마지하였다. 나폴레옹은 대 유럽 전쟁을 통해 유럽 국가를 하나씩 차례로 정복하여 제국을 건설해 나갔다.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는 정복하였지만 해협 건너 영국이 문

제였다. 바다는 영국이 정복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두 나라는 전쟁 상태에 돌입하였다. 프랑스는 국민총동원령으로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지만 영국의 병력은 겨우 1만 5천 명이였다. 부득이 영국은 대륙의 여러 나라와 동맹을 이루어 프랑스에 대항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나폴레옹은 흑한의 러시아를 6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그 후 동맹군에게 패하여 엘바섬으로 유배를 떠났다.

전후 처리를 위해서 빈에 모여 있던 유럽의 군주들은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하였다. 또 다시 나폴레옹과 대륙의 동맹군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브뤼셀 남쪽 15km 떨어진 워털루에서 유럽의 지도가 바뀌게 될 운명의 한 판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1815년 6월 18일이였다. 6만 8천 명의 동맹군을 이끈 총사령관은 영국의 왜즐리 장군(후에 웰링턴 공이 됨)이였고 7만 2천 명의 프랑스군을 이끈 총사령관은 나폴레옹이였다. 두 사령관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님은 점도 많았다. 같은 해(1769)에 태어났고 어릴 때 둘 다 아버지를 잃었고 파리의 육군사관학교도 같이 다녔다. 나폴레옹이 2년 선배였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의 작전을 꿰뚫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돌격을 일삼는 “꼬마 하사관”이란 별명을 갖고 있었고 웰링턴은 방어를 잘하는 “철의 공작”으로 불리워지고 있었다.

6월의 벨기에는 장마철이였다. 더구나 전투 전날 비바람이 몰아쳐 땅이 젖어 포신을 이동할 수 없을 지경이였다. 나폴레옹은 참모 네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격 시간을 이른 아침에서 땅이 마르는 정오경으로 늦추었다. 그는 공격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늦출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했지만 이미 그는 46세였고 참모들의 말을 꺾을 수가 없었다. 나폴레옹의 직관이 참모들의 계산을 능가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 공격이 이뤄졌더라면 유럽의 국경은 다시 그어지고 세계사는 다시 쓰여졌을 것이다. 네 차례에 걸친 프랑스군의 공격에도 동맹군은 약화되지 않았다. 마침내 오후 6시 네(Ney)가 보병, 기병, 포병의 합동공격을 개시하여 웰링턴 진지 중앙의 한 농가인 ‘라에생트’를 함락하고 지붕 위에 프랑스 삼색 깃발을 꽂는 데 성공했다. 이 광경을 망원경으로 지켜본 나폴레옹은 지금이 몇 시냐고 물으면서 승리의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라고 일렀다. 이 농가의 점령은 사실상 전투의 끝을 의미했다. 오후 7시 네(Ney)는 근위병과 나머지 병력을 재정비하여 웰링턴에 대해 최후의 전면 공격에 나섰다. 웰링턴의 패색이 짙어 보였다. 그러나 1시간 뒤 오른쪽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말 발굽소리와 함께 구름같은 병력이 몰려 왔다. 웰링턴도 나폴레옹도 그쪽을 응시하였다. 그루시가 나타나

면 나폴레옹의 승리가 확정되는 것이고 블뤼허가 나타나면 웰링턴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틀 전부터 나폴레옹의 참모 그루시는 3만 3천 명의 병력으로 13km 떨어진 리니에서 블뤼허가 이끄는 4만 5천 명의 프로이센 군을 저지하고 있었다. 운명을 결정지을 말 발굽소리는 블뤼허가 이끄는 프로이센의 주력 부대였고 그루시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음날 포연이 자욱한 새벽에 산더미같은 시신과 신음하는 병사들이 널브러진 전투 현장을 둘러보면서 웰링턴은 참모에게 물었다. “전투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참모는 말이 없었다. “그것은 패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잠시 후 웰링턴은 다시 물었다. “그 다음으로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참모는 역시 말이 없었다. “그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웰링턴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2만 3천 명의 사상자를 생각하고 평생 동안 이 승리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폴레옹의 병사는 2만 4천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면적 5km²의 격전지에 5만 명 가까운 병사들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이 전투를 끝으로 유럽은 23년만에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영국인들은 1066년 헤이스팅스전투에서 프랑스에 빼앗긴 자존심을 750년이 지난 1815년 위털루전투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1066년’과 ‘위털루’를 잊지 못하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미묘한 감정은 1994년 도버해협을 관통하는 해저 터널이 완성되고 런던과 파리를 운행하는 최고 시속 300km의 초고속열차 “유로스타”가 운행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파리는 북역을 런던은 위털루역을 발착지로 정했기 때문이었다. 위털루역은 런던의 주요 8개 역 중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기차역이다. 런던에서 유럽 각지로 건너가거나 유럽에서 런던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차는 위털루역에서 출발하거나, 위털루역에 일단 도착한 다음 지하철이나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어 있었다. 프랑스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더 가까운 역이 있는데도 왜 하필 위털루역이냐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영국은 내정간섭이라고 일축하고 파리의 북역 명칭을 헤이스팅스역으로 개명하라고 비아냥거렸다. 프랑스의회는 보복의 일환으로 모든 공문서에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의결하



1815년 위털루전투

였다. 물론 영어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 경제가 마비된다고 항의하여 이 안은 철회되었다.

프랑스인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그들이 과거 300년간 지배했던 영국에 대한 우월감이 있으며 영국인들의 가슴에는 프랑스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의 감정을 드러내는 에피소드로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때의 일화를 소개한다. 수십만의 연합군이 영국 해안에 진을 치고 있었으므로 히틀러는 연합군의 대륙 상륙이 임박했음을 알았다. 문제는 상륙 장소였다. 이때부터 속고 속이는 세기의 첩보전이 시작되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연합군 요원들은 어금니를 빼고 청산가리 캡슐을 물고 있었다.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은 처칠 수상에게 런던에서 프랑스 망명정부를 수립한 드골 장군에게만은 이 비밀을 알려주자고 제안하였다. 그때 처칠 수상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프랑스 놈은 믿을 수 없다.” 드골은 마지막까지 몰랐다.

영국인들이 워털루역을 지나갈 때마다 워털루전투를 떠올리고 거기서 나폴레옹을 무찌른 웰링턴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대구 지하철 1호선의 명덕역이 ‘2·28역’으로 이름이 바뀌면 1960년 2월 28일 수천 명의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여 지하철 위의 대명네거리를 따라 달리던 그 함성을 대구시민들은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대구에서 시작한 2·28데모가 단초가 되어 3·15마산의거로 이어지고 드디어 4·19혁명으로 완성되었다. 마산에는 ‘3·15로’가 있고 서울 수유리에는 ‘4·19로’가 있지만 대구에는 얼마 전 중앙초등학교가 ‘2·28기념중앙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을 뿐 2·28을 기념하는 도로나 역명은 아직 없다. 올해 2·28민주운동 50주기를 맞아 명덕역이 ‘2·28역’으로 바뀌고 중앙통의 중앙대로가 ‘2·28로’로 변경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 그 당시 모자를 주머니에 감추고 뒤쫓아오는 경찰을 피해 골목길로 도망치던 고3 시절의 나를 생각하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 ‘2·28역’과 ‘2·28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뜻 깊은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

(※ 영국은 폭주하는 교통량과 시간 단축을 위해서 ‘유로스타’ 발착지만 워털루역에서 세인트 팅크리스역으로 2007년 11월부터 변경하였다. 2시간 45분 소요되던 런던-파리는 30분 단축되었다.)

2·28민주운동 제50주년 사업

1. 목적

2·28민주운동 50주년을 맞아 2·28정신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이 시대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되고자 함.

2. 추진사업

1) 2·28민주운동 제50주년 기념식

- 일시 : 2010년 2월 28일(일) 10:30
- 장소 : 2·28기념탑헌화, 대구시문화예술회관 대극장(기념식)

2) 2·28민주운동 거리퍼레이드

- 취지 : 1960년 2·28민주운동을 예술적으로 창작시현하여 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2·2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 제고
- 방법 : 뉴캄파니 기획사의 연출로 2·28회원과 시민·학생이 직접 참가, 당시 학생 데모 모습을 상기시킴.(출발지 : 문화예술회관 - 버스이동 - 명덕네거리(경북여고 출발) - 반월당 - 2·28기념중앙공원 - 식후행사 - 해산)

3) 2·28민주운동 제50주년기념 학술 심포지움

- 주제 : 2·28 민주정신과 국가의 선진화
- 일시 : 2010년 2월 24일 10:00 ~ 14:00
- 장소 : 대구그랜드관광호텔 다이너스티A홀(2층)

4) 2·28민주운동기념사업 50년 사료 발간

- 취지 : 2·28민주운동 제50주년을 기념하여 2·28기념사업 50년의 활동상과 업적을 수집 정리하여 2·28민주운동의 의의와 대구·경북민의 자긍심 제고
- 발간위원 : 편찬, 집필, 편집, 감수위원 구성 운영
- 내용 : 2·28민주운동사와 2·28기념사업회 20년의 활동상과 업적을 편술함
- 발간일 : 2010년 4월 중

5) 2·28민주운동 교육용 교재 발간

- 취지 : 초·중·고의 교과과정 중 2·28민주운동 교육내용을 교사용 교육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주의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함.

- 내용 : 2·28민주운동이 4·19민주혁명의 출발점인 동시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효시임을 교육 지침서에 기술함.
- 발간일 : 2010년 2월 중
- 체제 : 보충(장학자료) 100쪽, DVD, 15,000부
- 배포 : 대구 초·중·고 교당 100부, 경북 초·중·고 교당 5부, 전국 시·도교육청당 200부, 유관기관, 도서관, 보관용 등 3,000부

6) 제10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시상식

- 일시 : 2010년 6월 중

7) 2·28햇불 발행

- 연 4회(14,000부 발행)

8) 2·28로 및 2·28지하철역명 명칭 변경 추진

- 내용 : - 2·28길(路) 지정 : 1961년 4월 1일 명덕로터리에 건립되어 1990년 10월 두류공원으로 옮겨진 2·28기념탑이 30년간 있었고 당시 학생데모의 주활동로였던 현 중앙대로를 2·28로(路)로 변경
- 2·28역(驛) 지정 : 대구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현 명덕역을 신설되는 3호선과 교차되는 환승역 명칭을 2·28역(驛)으로 제정
- 방법 : 대구시, 지하철공사에 건의

9) 2·28기념회관 건립

- 목적 : 2010년 뜻깊은 2·28 제50주년을 기념하여 도서관 기능성 “2·28기념관”을 건립하여 공익도서관, 2·28회원 관리, 홍보관, 자료실, 교육장 등을 운영 2·28정신을 계승함(대지 400평,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
- 내용 : 별도 계획

10) 2·28관련 법률 개정

- 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정의)에 2·28대구민주운동을 포함

11) 2·28회원배가 운동 계속 추진

- 목적 : 2010년 뜻깊은 2·28민주운동 제50주년을 맞이하면서 회원 10만명 가입 독려하여 50주년 의의를 높이고자 함.

2·28민주운동 제50주년 기념식 계획

1. 2·28기념탑 헌화 : 2010. 2. 28.(일) 9:00 2·28기념탑(임원 및 회원)
2. 50주년 기념식 : 2010. 2. 28.(일) 10:30 대구시문화예술회관대극장(성당동)
3. 참석대상자 : 중앙인사, 각급기관장, 2·28회원, 시민, 학생 등 1,000명
4. 식전 행사 : 2·28찬가, 시민의 노래 음악, 2·28민주운동 관련 스크린 영상
5. 식순
 - 개회
 - 국민 의례(악대, 합창단)
 - 경과보고(2·28부의장)
 - 결의문 낭독(학생)
 - 기념사(2·28공동의장)
 - 축사(VIP,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장, 대구광역시교육감)
 - 2·28찬가 제창
 - 폐회
 - 식후행사 : 퍼레이드, 경북여고 정문앞 출발(기념식장→경북여고 버스로 이동)
6. 퍼레이드 : 11:30. 600명
 - 코스구간(결의문 낭독 방송, 2·28찬가 방송)
 - 1) 참가 인원
 - (1)VIP, 기관장, 회원, 시민 등 : 240명
 - (2)학생: 320명
 - 2) 퍼레이드코스
 - 경북여고출발 → 반월당 → 중앙네거리 → 한일극장 → 2·28기념공원도착
 - 공연(뉴캄퍼니이벤트)
 - 3) 퍼레이드시 행렬순서
 - 취타악대, 퍼포먼스, 학생피켓, 만장기따라 각급단체장, 2·28회원, 시민 참여
 - ※ 2·28기념공원 도착 후 공연 참가자 음료수, 빵 지급
7. 식후 행사(2·28기념중앙공원)
 - 1) 인사말 2) 공연진행 3) 폐회

풀의 말



피 귀 자

열린 창 밖으로 비가 내린다. 손바닥을 타고 내려오는 어린 떨림들, 바짝 마른 명아주 대궁에 얹혔던 겨울이 울고 있다. 마지막 흔적 같은 겨울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는 정말 너를 보낼 수 있으리.

참으로 오랜 만에 농부 흉내를 내어 보았다. 무엇을 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르는 일이라 여기며 꽃밭을 일구었다. 가장자리에는 꽃을 심고 남은 땅에 가지와 고추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었다. 희망과 기쁨 한줌씩 섞어서 상추와 쪽갓 씨앗도 소복이 뿌렸다.

기대에 부풀어 아침저녁으로 흙을 주무르며 정성을 쏟았다. 육중한 흙덩이를 들어 올리며 뽀족이 고개를 내미는 어린 싹에게 경이로움을 배우고 꽃 진자리에 모양을 갖추어 가는 열매를 본 날은 신천지라도 발견한 양 호들갑을 떨었다. 유기농 채소로 길러 보겠다고 비료 한 톨 약 한번 치지 않았다.

장마 탓일까. 잘 자라던 잎 위에 검은 씨앗 같은 딱지가 뒤덮더니 상추와 쪽갓은 녹아내리고 고추 잎은 누렇게 말라갔다. 크게 실망하여 한동안 내버려뒀더니 채소밭이 어느 새 잡초 밭으로 변해 버렸다. 모종과 씨앗 값은 젓혀 두고라도 그간 기울인 정성이 물거품인지라 밭으로 뛰어 들었다. 불청객 잡초가 여간 괴씸한 게 아니다.

왕바랭이 망초 쇠뜨기들의 기세도 보통은 아니었지만 마음먹고 힘을 모으니 뿌리를 드러냈다. 그러나 명아주만은 달랐다. 맨손으로 달려들어 줄기를 감아쥐었으나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의외다. 왕좌라도 차지한 듯 발 중앙에 우뚝 서 있는 품이 도도하다. 큰 것은 사람 키만큼 자란다고 하더니 어느 새 허리를 넘었고 튼실한 줄기는 솟제 나무 같다. 옆으로 벌어진 모습도 암팡지다.

‘그래봤자 잡초일 뿐이지.’

숨을 모아 다시 힘껏 들어 올려 보았으나 허사였다.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요지부동이다. 안간힘을 쓰며 이리저리 흔들려봤지만 오히려 잡초에게 휘둘릴 지경이다. 꺾어지는 것은 잡초가 아니라 지쳐가는 나의 의지였다.

스스로의 힘을 가늠이라도 해보는 걸까. 손아귀 속에 몸을 맡긴 채 리듬이라도 타는 듯 흔들리며 내뿜는 저항이라니. 낭패다. 기대고 부릴 곳 없는 풀 따위라고 얄잡아보고 맨손으로 달려든 자신에게 약이 오른다. 누가 이기나 오기로 버텨보지만 이미 패색이 짙다.

단번에 뽑아버리고 말리라 등등하던 기세는 어디로 가고 아파오는 허리 펴기도 바쁘다. 그까짓 풀 한 포기 어찌지 못하다니. 다시 기합까지 들어가며 흔들려댔다. 몸으로 내뿜는 잡초의 항변인가. 명아주 줄기의 꺾질이 벗겨져 버렸다. 손끝에 전해지는 축축한 물기, 살아 있다는 유연함과 피돌기 같은 수액의 생생한 느낌, 풀줄기에 든 원시의 시간에 가슴이 울렁거리려 나도 모르게 손을 놓고 말았다. 모든 식물은 영체라고 하더니.

당장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꼭 뽑아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잡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난을 당해야 하는 목소리 낮은 풀의 말, 풀의 저항. 때로는 알량한 동정과 연민이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으려나.

“명아주는 나물도 해먹지만 약초인가. 모기나 벌레에게 물렸을 때 생즙을 내서 바르고 모깃불로도 좋제.”

가슴 울렁거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 있는 내게 이웃집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다.

애써 키워 보려던 채소들은 어설픈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더니 적의에 서러운 풀들은 저절로 무성하다. 잡초는 뿌리만 마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파릇 파릇 살아난다. 뽑혀지고 넘어지고 시들어도 또다시 일어선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는지.

온몸으로 저항하는 풀의 말에 더 이상 어찌지 못하고 초라하게 물러나고 말았던 채소밭. 계절을 머금고 말라버린 명아주 줄기위에 봄을 재촉하는 빗방울이 촉촉이 내리고 있다. 개운하지 못한 패배의 잔유물, 명아주가 남겼을 씨앗들이 반란을 꿈꾸는 땅 위로 봄이 오고 있다. ♣

피 귀 자

경북 안동 출생, 대구교육대학 졸업,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대구문인협회 회원,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대구수필가협회 이사, 수비작가회의, 여향예원 회원, 달구벌수필 동인 수필과 지성 문예아카데미 원장 역임, 수필집 『중이 날개』

무섬別曲

- 사 계



강 문 속

<봄>

강물이 먼저 눈 뜬다.
천년의 달빛 내려앉아 금모래 뿌리고,
청산을 휘돌아 불어오는 이른 바람
시린 강줄기 베고 돌아눕는다.

*두리기둥 난간에 반만 숨은 색시처럼
단힐 듯 열리는 귀 모으면,
오래된 회화나무가지 끝에 새잎 틔우는
우주의 내밀한 저 숨소리, 따스하여라.

<여름>

산비알 기어오르는 도라지 청보라빛 꽃무리.
海愚堂 軒檻 끝 빗금으로 떨어지는 햇살.
돌담에 기대 단물 쟁이던 단호박 둥근 어깨.
밤이면, 저마다 하늘 집으로 돌아가
별이 되어 빛나는지, 총총

백발의 宗婦와 두런거리며
뜨건 모래밭에 누워, 世波에 젖은 몸들
밤 깊도록 무섬에서 별을 헤다.

〈가을〉

정처 없는 날이면, 그곳으로 가리.
시나브로 마른 창호지 같은 잎들, 지는 사이
무심하늘 별빛들 조금은 성글어졌느냐.
如如히 흐르던 강줄기 하마 수척해지는데
노을 태우던 저녁 숲은 또 얼마나 붉어졌느냐.

긴 세월 건너와 홀로 의연한 선비처럼,
텅 비어서 충만한 저 들판처럼
梅花落地 물 위의 섬엔, 가을이 깊다.

〈겨울〉

그리운 님 오신다는 기별에
밤새 서쪽 하늘 환해지더니,
아득히 퍼붓는 폭설.
먼 산 청솔 숲에 만 마리 학이 내려앉았네.

저리도 고고한 무섬이여.
사라질 듯 나타나는 한 폭의 세한도.
눈썹 끝에 매달린 눈으로는 못내 아쉬워
오늘은, 먼눈으로 바라보겠네.

*무섬 :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소재

*조지훈의 시 '別離'에서 차용함

강 문 속

- 경북 안동 출생
- 1991년 매일신문 신춘문에 시 당선
- 1993년 작가세계 신인상 당선
- 한국시인협회 회원
- 〈시. 열림〉 동인
- 시집 ; 〈잠그는 것들의 방향은?〉 〈탁자 위의 사막〉 〈뜨거운 종이컵〉
사진공동시집 〈보고 싶다〉

2·28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정 시 식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법률개정분과위원장

지난 12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차중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해봉 국회의원의 차분하면서도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방금 통과되었다”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었다. 50년 전의 함성이 되살아남과 동시에 대구가 민주화운동의 산실이라는 명예를 되찾았다는 미묘한 감정이 교차되었다.

지난 2009년 12월 29일, 2·28대구민주운동을 “민주화기념사업회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2·28의거가 대한민국 건국 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다. 이로써 2·28대구학생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되어 법률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시민과 회원들의 염원이었던 기념관 건립에 국비지원과 시비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5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동법 제2조 민주화운동 정의에 2·28대구민주운동이 빠짐으로 해서 동 사업회가 정체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2·28대구학생의거는 초·중·고 학생들이 교과 과정에서 학습되고 있고, 역사 문헌 자료와 언론, 학술 논문에서도 서술

되어 왔다. 2·28제40주년 기념식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여 2·28대구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라고 선언했었던 사실을 보더라도 법률제정과정에서 4·19민주혁명의 출발인 2·28대구학생의거를 누락시켰던 것은 오류로 3만여 회원들은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하였다.

그 동안 본회에서 민주화기념사업회와 관계부처에 수차 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었다. 제17대 국회에서 이해봉 국회의원의 개정발의로 개정되는 듯했으나, 동시 발의된 민주재단법의 명칭 개정에 대한 반대로 무산되어버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동시 발의된 명칭 변경이라는 복병을 만나 그간 심혈을 기울여 온 이 의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17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개정안도 폐기되어버리는 아픔을 안기도 하였다.

제가 2·28기념사업회 제5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개정분과를 맡게 되어 이해봉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이미 이 의원은 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28학생운동의 과정과 당위성을 동료의원들에게 알리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009년 6월 임시회에서 이해봉 의원이 123명의 의원 동의를 얻어 개정 법률안이 해당부처에 제출되어 동년 11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12월 22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해봉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통과되었다. 몇 차례 법률심의 과정에서도 2·28에 대한 이의는 전혀 없었다. 법률제정 초기에 성안자의 잘못으로 2·28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하여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50주년을 눈앞에 두고 법률이 개정되고 2·28민주운동의 정체성 확립과 정위(正位)를 찾게 된 것은 시·도민과 더불어 감격스럽기 그지없다. 이해봉 국회의원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전 회원의 이름으로 큰 박수를 보내며 성원해 주신 시·도민에게 고마운 마음 금할 수 없다.

2·28대구민주화운동은 3·15의거와 4·19혁명을 선도한 대한민국 헌정상의 민주화운동의 발화점이요, 민주화의 효시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며, 청사(靑史)에 길이 빛날 고등학생들의 순수한 의거로 제자리를 찾고 정당성이 확립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에 기리 빛나기를 염원한다. ▮

2·28 紀念 圖書館 建立에 즈음하여

권 국 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기념회관건립분과위원장

수성천변 여당 정·부통령후보자 유세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약 1주일 동안 ‘2월 28일 일요일 등교’에 대한 학급내 토론이 수업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줄곧 이어져 갔다.

1960년 2월 28일(음력 2월 2일) 학교 교정 남쪽 소운동장 교단을 둘러싼 1,000여 명의 고1·2학년 전교생, 만류하는 몇몇 선생님, 두 학생의 선언문 낭독, ‘동방의 빛이 되리라’, 한 한생이 ‘도청으로’ 구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교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자 말자 야당 부통령 후보 무개차와 막다 쓰리다.

매일신문사 앞 선언문 낭독, 도지사 면회요구, 도청 광장 선언문 낭독, 경찰동원, 도청광장 이수라장 ‘시청으로’ 시청 앞 네거리 직전 경찰동원, 착검한 총, 시위 학생들 혼비백산
1960년 2월 29일(월요일) 평소와 다름 없이 등교하다.

2·28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승화시켜 민주발전과 국민화합 또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대구 광역시가 계획한 기념(건물) 사업이다.

2·28민주운동의 민주정신을 부활시키고 ‘일요일 등교’라는 ‘기억의 역사’로 기억됨은 물론 동시에 지역성을 탈피한 세계 민주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역사 교육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공간 창출에서도 기능성, 상징성, 조형성이 조화된 휴먼 스케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현대적이고 친숙한 공간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2·28민주운동의 리얼리티를 알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염원인 항구적 민주화란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깨달

음에서 구축되며 민주운동을 결코 잊지 않는 민족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는 기념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기록의 상징적 공간이며 기억과 증언의 관련 자료를 담아 두는 보존의 공간이며 학술의 공간이다.

기념관 건축은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는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기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물건 또는 여기에 담겨진 정신을 위해 있다기보다는 ‘건축’ 그 자체로서 압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민주화 성지’로 가꾸기 위한 이용 공간으로서의 건축물과 민주화를 상징하는 조형물과의 상호 조화, 주변 상황과 화합하여야 할 것이다. 2·28 기념 건물이 설계자만의 조형 의지와 작가정신을 뛰어넘은 ‘우리의 것이라는것’에 초점을 맞춰 남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획의 주안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건축, 좋은 디자인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조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현대인의 요구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할 것이다.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유니버설 디자인의 화두 수용
-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의 최대한 표현
- 현대건축에서 매스(MASS)와 스킨(SKIN)은 자연과 사람과 도시와 관계를 맺는 경계이다.
-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유기적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여가 활동의 장, 민주정신 고취의 공간
- 외부공간 조형물의 2·28민주운동의 상징과 동시에 전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 도서관(자료실, 열람실, 세미나실, e-Book실, 관리실), 전시 공간(영상관) 관리 공간, 교육 공간, 연구 공간, 집회 공간, 수장공간, 설비공간

기념관 건물, 미국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의 링컨 좌상의 이미지, 뉴욕 자유의 여신상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서 이제 건립하게 될 2·28기념관과 조형물의 콘셉은 50년전 정의의 횃불이 순천승화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IRIS), 더 나아가 온 누리를 밝히는 촛불, 온 세상에 내리는 민주 보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28민주운동 5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이 방 현

50주년기념식 준비위원회
총무분과위원장

2·28은 어떤 날인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후배들을 위하여 몇자 쓰고자 합니다.

2010년 2월 28일은 대구에서 소수의 영달을 위하여 그 많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했던 자유당 독재의 불의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대구 국·공립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데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신문지상에 데모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시대상황은 ‘못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민주당의 선거구호처럼 대다수 국민들은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데 자유당독재의 부당함에 나서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므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수성천변에서 그 당시 민주당 대선 유세 강연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공립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민주당 유세장에 못 가게 하기 위하여 각 학교별로 예년에 없었던 졸업식 연습을 한다, 노래 자랑을 한다는 등등의 이유로 일요일 인데도 불구하고 등교를 명하여 각 국·공립 학생들이 등교를 했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 간부들이 부당한 등교사유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전에 강당이나 교실에 통제되었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보가 빠른 수십명은 통제공간에서 빠져 나가 데모에 참가하였고 또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 간부들이 등교하여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에게 결의문을 낭독하고 거리로 뛰쳐 나와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면서 분연히 일어나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구타를 당하거나 경찰서로 끌려가거나 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할지 모르고 불안한 상태에서 그 불이익을 각오하고 제일 먼저 그 일을 저지르는 용기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뒤 그 응징의 수위를 보고 따라 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처음 감행하는 행동은 그 행동에 대한 응징이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의 민주화 운동이 오늘날의 민주화 운동의 최초의 횃불이요, 효시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러한 뜻 깊은 날이 벌써 반세기 된 5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을 돌이켜보니 40주년 기념식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공약도 했으나 아직도 2·28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하고 셋방살이로 전전하다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역대 의장을 비롯하여 현 안인옥 의장과 박명철 사무총장의 불철주야 노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과 대구시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대구시청 관계부서 직원, 이해봉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구출신 국회의원, 정시식 2·28민주운동 5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법률분과위원장의 노고로 인하여 2·28기념관 건립 예산이 2010년 예산에 25억이 계상되었다.

40주년 기념식에 고 김대중 대통령도 모셨는데 이번 50주년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2·28도서관 기공식까지 했으면 하는 희망 사항입니다. 그리고 50주년 기념식 행사 식후 거리퍼레이드 포퍼먼스 등 시가행진(학생 및 시민 등) 2·28공원에서 합창단 및 기타공연 등 2010년 2월 28일은 특별한 사람들의 기념일이 아니라 대구·경북 주민 모두가 아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세기만에 맞이하는 50주년 기념식은 그 어느 때보다 뜻 깊은 기념식이 될 것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애국심으로 승화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듯이 대구에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난 2·28 민주화운동도 대한민국 민주운동 횃불의 효시가 되어 마산 3·15 서울 4·19 등 전국으로 퍼져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초석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때 그 주역이었던 1·2학년 학생들은 이제 종심(從心)을 바라보는 초로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50주년 2·28기념식을 기하여 학생들이나 후배들이 불의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난 불굴의 2·28정신을 이어받아 계승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서히 퇴진하고자 합니다. 후배들께서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합심하여 노력하는 마음...

김 명 환

2·28민주운동
제50주년사업국비지원분과위원회

2·28민주화운동의 제50주년을 맞이하는 2010년은 뜻깊은 해가 될 것 같다. 지난 2009년 12월 29일 2·28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우리 대구지역민과 회원들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지지부진했던 2·28기념사업과 2·28기념관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2·28세대를 마감하는 연륜에 접어들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대구정신과 우리나라 민주화의 효시로 존속하고 그 정신을 계승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가슴 벅차고 보람 있는 성과이며 4만3천여 회원의 일치단결된 성원의 힘이라 하겠다. 명예스러운 2·28의 숭고한 정신을 애써 구걸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나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지키고 부정부패에 대항하며 민주화를 외쳤던 정신만은 꼭 간직하고 싶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렇게 50년을 기다려 왔고 2·28 제50주년을 맞이하면서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주위 지인들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하며 노력한 일들이 보람이면 보람일까? 지난 10여 년 동안 타 지역 단체들보다 편향적 지원사업으로 지지부진하며 추진되어 왔던 2·28기념관 건립 국비예산이 지원되게 되어 한순간 피로감이 싹 날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법률개정과 예산심의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이해봉 의원, 이명규 의원과 지역국회의원들, 행안부장관 등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특히 김범일 대구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우리 2·28대구학생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자손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층 남아 있는 힘을 다하여 더 많은 관심과 정신으로 참여하여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진하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 2009년 12월 29일 16:00 —

2009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봉 의원이 지난 4월 14일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 표의 반대도 없이 192명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되었음

동 개정안은 ‘2·28대구민주화운동’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2·28대구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것임.

‘2·28 대구민주화운동’은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와 관련한 일련의 부정선거운동 기도에 대하여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학원의 자유 확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펼친 대표적인 저항운동으로서, 그동안 학계와 민주화운동 분야에서는 3·15의 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하면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만 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6·3한일회담 반대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등은 하위법인 시행령에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이에 이해봉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개정하여 2·28대구민주화학생의 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법에 명시하여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았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이해봉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2·28의거를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병합심의된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안의 내용 중 민주재단 설립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업무영역 확대 사항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임기말로 폐기되었다가 이번 18대에 이해봉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해서 결국 통과되게 된 것임.

이해봉 의원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동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비롯하여 여야가 포함된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상정했음. 또한 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직접 제안설명을 하며 동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였으며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의결을 끌어 냈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김충조 의원은 동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서 호남에서도 ‘2·28 대구민주화운동’ 덕분에 대구를 가슴 속의 고향처럼 생각한다며 “이해봉 의원이 직접 제안 설명을 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의결될 것”이라고 하며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지지했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도 동 개정안에 대해 ‘국가적인 기념을 통해 불의에 항거한 청년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대대로 전승·발전시켜야 할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뒤늦은 감이 있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긍정적이라고 했음.

이와 같이 뜻을 같이한 많은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참여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금일 동 개정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게 된 것임.

이에 따라 2·28 대구민주화운동의 법적 지위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법적지위 완성에 따라 전실실과 도서관 등을 갖춘 ‘2·28민주운동 기념회관(지하1층 지상 4층 규모, 연건평 2천 500m²)’ 건립에 80억원의 국비지원이 가능해졌으며 2010년 예산에 25억원이 반영되었음.

이해봉 의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2·28 대구민주화운동’이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후세에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구가 민주화 운동의 산실로서 그 자존심을 되찾게 되었다고 했으며 향후에도 2·28 대구민주화운동 정신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550

발의연월일 : 2009. 4. 14.

발 의 자 : 이해봉 · 조진형 · 최인기 · 강봉균 · 권경석 · 박근혜 · 김충조 · 정몽준
김영진 · 안상수 · 이인기 · 홍사덕 · 안경률 · 송민순 · 공성진 · 이인제
정의화 · 원유철 · 정갑윤 · 신지호 · 김부겸 · 권선택 · 이낙연 · 김성곤
김성조 · 이범래 · 장제원 · 김태원 · 유정현 · 김낙성 · 김소남 · 최병국
변재일 · 류근찬 · 박상은 · 김종률 · 이시종 · 조영택 · 오제세 · 임동규
주성영 · 유성엽 · 손범규 · 박은수 · 이명규 · 이철우 · 정혜걸 · 장윤석
서상기 · 조진래 · 조원진 · 정희수 · 박종근 · 이한구 · 배영식 · 김성수
이한성 · 유승민 · 주호영 · 유기준 · 강창일 · 조문환 · 김효재 · 김광림
김성희 · 권영세 · 이윤성 · 송광호 · 허태열 · 김태환 · 진 영 · 김충환
이주영 · 김노식 · 송훈석 · 정진석 · 정태근 · 남경필 · 김무성 · 이혜훈
이종혁 · 정진섭 · 유정복 · 강길부 · 김성태 · 현기환 · 이병석 · 서병수
최연희 · 황우여 · 김성식 · 권택기 · 안효대 · 김학송 · 허 천 · 최옥철
박 진 · 윤석용 · 한선교 · 윤 영 · 강석호 · 장광근 · 박보환 · 이진삼
이성현 · 이명수 · 박대해 · 이진복 · 나경원 · 구상찬 · 안홍준 · 고흥길
황진하 · 이계진 · 성윤환 · 유재중 · 최경환 · 박지원 · 이용희 · 김영선
이경재 · 백성운 · 신성범 의원(123인)

제안이유

2·28 대구민주화학생의거는 과거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건국 이후 자발적 민주화운동의 효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3·15 마산의거와 4·19혁명만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당시 자유당 정부는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을 했고 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를 맞아 부패 · 불의로 민심이 이반했음을 알고도 부정선거로 집권을 연장할 것을 기도했음.

1960년 2월 28일 대구 시내 수성천변에서 야당의 부통령 후보인 장면(張勉)박사의 선거 연설회가 계획되었음. 일요일인 그날 자유당 정부는 고교생인 어린 학생들이 유세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대구 시내 전 공립 고등학교에 일요 등교를 지시했고 학교 당국은 온갖 핑계로 일요 등교를 강행하기에 이르렀음.

어린 학생들마저 정치도구로 희생시키려 했던 것으로 학교에 따라 갑자기 임시시험을 친다고 했고, 단체 영화 관람이나 토끼사냥을 간다는 핑계로 등교를 종용했음. 그러나 학교에 모인 8개 고교 1·2학년 학생 2,300여 명은 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유당의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는 집회로 바꾸어 쫓기했고 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뛰쳐나와 경북도청과 대구시청, 자유당 경북도당사, 경북지사 관사 등을 돌며 자유당 정권의 악행을 규탄했으며 이 과정에서 술한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경찰에 연행되어 고통을 받았고 교사들도 모진 책임추궁을 받았음. 이에 본격적인 언론보도로 전국적인 학생시위로 확산된 것임. 당시 야당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고 어른들도 말 못했던 공포 분위기를 어린 학생들이 처음으로 흔들어 놓은 것임. 학생들도 아버지와 형님들의 말 못하는 사정을 알았던 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당 정권에 육탄으로 항거했던 것으로 건국 이후 관제 데모만 보아왔고 관제 데모에만 동원되어 왔던 학생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대구 시민들도 도피 학생들을 숨겨주는 등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않았음.

2·28 대구민주화운동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불씨를 이어온 자랑스러운 학생민주의 거로 민권에 의한 민주 성취를 이룩한 4·19의거가 대구의 어린 고등학생들이 지핀 위대하고 기적 같은 불씨에 의해 발화되었다는 사실은 청사에 길이 간직돼야 하고 그 정신은 길이 보존돼야 할 것임.

1962년 2·28 학생의거 기념탑이 대구시의 지원으로 건립되어 매년 기념사업회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행사를 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일환으로 303억 7,000만원(국비 118억 5000만원, 시비 185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14,329m²(4,342평)의 부지 위에 2·28 기념 중앙공원을 조성하였음.

이에 2·28 대구민주화학생의거를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의 2·28 대구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28 대구민주화운동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킴(안 제2조).

법률 제 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15의거,”를 “2·28 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민주화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민주화운동의 정의)----- ----- <u>2·28 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u> ----- ----- ----- ----- ----- -----.

2·28기념탑 안내표지판 설치

2009년 12월 22일, 대구 두류공원내에 세워져있는 2·28대구학생의거 기념탑 안내를 위한 방향표지판을 설치했다. 2·28기념사업회가 건의하여 대구시 달서구청이 설치한 2·28기념탑안내표지판은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효시며 4·19혁명의 출발점인 2·28대구학생의거 기념탑이 1991년 2월 28일 대구명덕네거리에서 두류공원으로 이전되면서 이전위치를 몰라 시민들로 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다.



김약수 2·28감사 예총문화상 수상

김약수 대구미래대 교수(한국예총 경산지회장)는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왕성한 예술활동을 통한 예술문화창달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예술문화단체에서 시상하는 제23회 예총문화상을 수상했다.



IS 2009년 12월 19일 토요일
일간스포츠

김약수교수 제23회 예총예술문화상 수상

대구미래대학 김약수교수(한국예총 경산지회장)은 왕성한 예술활동을 통한 예술문화 창달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예총 문화단체가 시상하는 제23회 예총문화상을 수상했다. 문의: 053-810-9006

햇불지 36호 편집회의



지난 12월 7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2·28 햇불 36호 편집회의(위원장 김약수)를 개최하고 자료수집과 편집기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2·28 교사용 교재 발행 감수회의



2009. 12. 28. 2·28사무실에서 ‘2·28 교육교재 발행’ 감수회의를 개최하고 2·28민주운동 교육내용과 역사교육에 맞는 교사용 교육지침서 내용을 검토하였다.

2·28 자연보호 산악회



2009. 10. 30. 대구 앞산 고산골에서 오색단풍의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계곡을 오르며 자연보호활동과 등산을 하며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보람된 한때를 보냈다.

2·28 일지

- 10. 19.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시의회의장, 부의장, 행정자치위원장 사무처장 예방, 업무협의(안인욱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10. 28.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운원)일행 부산, 마산 민주화단체 관련시설 현장답사 격려(안인욱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10. 29. 협성교육재단 신철원 이사장 예방 업무협의(안인욱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10. 31.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면담, 서울(안인욱 의장)
- 11. 3. 매일신문 이상준팀장과 특집 협의(안인욱 의장)
- 11. 20. 2·28교재 감수회의(2·28사무실)
- 11. 23. 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위원회 2·28개정법률심의통과
- 12. 7. 햇불36호 편집회의(2·28사무실)
- 12. 24. 대구일보 이정우 기자와의 대담(안인욱, 백진호, 박명철)
- 12. 28. 2·28 교육교재 편집 회의(주용영 교수)
- 12. 29. 2·28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12. 30. 이해봉 국회의원과 통화(2010년 1월 2일 간담회)

2009년도 회원가입 현황

2010년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존채 강녕하옵시고 귀 기관의 발전을 앙축합니다. 지난 乙丑年에 본회의 사업추진에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전 회원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관별로 인사를 드려야 하나 많은 국민이 햇불지를 접하기에 이렇게 결례함을 해량하옵고 만수무강, 행복충만, 사업번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 5. 7.~2009. 12. 30. 현재)

연번	가입연월일	단체, 개인	인원수(명)	금액(원)	추천
1	2009. 5. 7.	김재진외 9명	10	100,000	의 장
2	5. 19.	장진호외 4명	5	50,000	"
3	5. 25.	김연철 전교육감	1	100,000	"
4	5. 25.	진우회 32명(8. 25. 추가분 6명 포함)	32	320,000	"
5	5. 26.	박중렬, 최수영, 한창렬, 노은수	4	40,000	"
6	6. 15.	대구은행 439명	439	4,390,000	"
7	7. 7.	대구동부공고 학생 149, 교사 7	156	219,000	"
8	7. 13.	영남고 학생 76명, 교사 1명	77	86,000	"
9	7. 14.	신상철, 도정기 2명	2	20,000	"
10	7. 17.	경북고 학생 557명	557	557,000	"
11	7. 17.	교육정보원 15명	15	150,000	"
12	7. 23.	교육연수원 20명	20	200,000	"
13	7. 23.	교육과학연구원 6명	6	60,000	"
14	7. 24.	시립도서관 39(중앙7, 서부9, 수성1, 북부2, 대봉5, 남부10, 동부5)	36	390,000	"
15	8. 3.	대구학생문화센터 5명	5	50,000	"
16	8. 4.	김경봉, 김근본	2	20,000	"
17	8. 7.	교육위원회 9명	9	90,000	"
18	8. 10.	시교육청공무원 213(교육청86, 동부37, 서부38, 남부32, 달성20)	36	390,000	"

연번	가입연월일	단체, 개인	인원수(명)	금액(원)	추천
19	8. 13.	안병우 외 2	3	30,000	의 장
20	8. 17.	김영식 외 2	3	30,000	"
21	8. 19.	이재인 외 1	2	20,000	"
22	8. 21.	정성관, 양승을, 박충경, 김창호	4	400,000	"
23	8. 28.	시지고 유대만 교장 외 56명	57	75,000	"
24	8. 31.	농협 대구지역본부 257명	257	2,570,000	"
25	9. 2.	대구교육자봉사단체협의회 13명	13	130,000	"
26	9. 2.	북대구 농협 17명	17	150,000	"
27	9. 5.	한민족협회 6명	6	60,000	"
28	9. 8.	경북여자정보고 교장 1, 학생 1,005명	1,006	1,015,000	"
29	9. 10.	교장 모임 7명	7	70,000	"
30	9. 10.	대구고등학교 1,092명	1,092	1,092,000	"
31	9. 12.	퇴임 교장 4명	4	40,000	"
32	9. 15.	경덕여고 교사 7, 학생 286명	293	356,000	"
33	9. 15.	교감 선생님 5명	5	50,000	"
34	9. 16.	정일수, 이현록 외 4명	6	60,000	"
35	9. 17.	퇴임 교장 2, 한상철 외 1명	4	40,000	"
36	9. 24.	임아현	1	10,000	"
36	9. 25.	대구은행본점 그린나래 2명	2	20,000	"
37	9. 28.	대구고 교사 36명	36	360,000	"
38	9. 29.	경신고 학생 1,710명	1,710	1,710,000	"
39	9. 29.	경대사대부고 650명	650	650,000	"
40	9. 30.	경북여고 교사 26, 학생 492명	518	752,000	"
41	9. 30.	kr&d 최영인, 안경택 2명	2	20,000	"
42	9. 30.	경신고 교사 88명	88	880,000	"
43	10. 13.	대구공고 교사 24, 학생 279명	303	519,000	"
44	11. 5.	손재호, 김광조	2	20,000	"
45	11. 4.	대구고 39회 박혜인 외 3	4	40,000	"
46	11. 5.	다사고 교사 5, 학생 55	60	105,000	"
47	11. 16.	대구고부설방송통신고 학생 308명	308	307,000	"
48	11. 16.	도원고등학교 교사 3명, 학생 85명	88	115,000	"
49	11. 25.	대구여고 교사 6명, 학생 266명	272	326,000	"
50	11. 25.	정승택외 1명	2	20,000	"
51	11. 26.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교사 28명, 학생 609명	637	889,000	"

연번	가입연월일	단체, 개인	인원수(명)	금액(원)	추천
52	12. 8.	서정범 외 1명	2	20,000	의 장
53	12. 10.	대구고부설방송통신고 학생 64명	64	64,000	"
54	12. 24.	대구대진고등학교 학생 321명	321	321,000	"
55	12. 24.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교사 34명, 학생 134명	168	474,000	"
56	12. 30.	경북여자고등학교 학생 65명	65	65,000	"
계			9,673	22,867,000	"
임 원 및 이 사					
		안인옥, 백진호, 권국현, 여행웅, 이양강, 장영향, 정태일, 김약수, 서성욱, 박정돈, 김광홍, 김길식, 김동환, 강모인, 김명구, 김상숙, 김옥화, 김정길, 김종규, 김중기, 김진용, 김창호, 김춘태, 김춘효, 김태근, 김시학, 김태일, 노백무, 박규하, 박수관, 박창영, 박충경, 백승대, 서돈수, 류 번, 서영수, 손희도, 신순철, 심재태, 안택수, 양성호, 양승을, 오승원, 윤수동, 이광조, 서정일, 이문웅, 이방현, 이수광, 이완식, 이원순, 이점석, 이정순, 이현희, 이희영, 장만수, 장무웅, 장주효, 전병조, 정만진, 정성관, 정시식, 정석재, 정수용, 조삼승, 조영길, 조 압, 최세탁, 최덕수, 최용호, 홍종흙, 황명식			



운문사의 처진 소나무
(장국현 작가 제공)

기관 회원 가입 현황

(1999. 6. 1.~2009. 12. 30. 현재)

회원	입회 연월일	소 속	회원수(명)	금액(원)
단 체	1999. 6. 1. 이후	2·28기념사업회 단체회원	122	160,965,000
개 인	1999. 5. 22. 이후	2·28기념사업회 일반회원	6,902	47,052,000
		교수	78	710,000
		교사	337	3,370,000
		대학생	38	100,000
		경북고등학교	5,899	5,899,000
		대구고등학교	5,657	5,657,000
		경북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689	3,689,000
		경신고등학교	2,906	2,906,000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2,651	2,651,000
		대건고등학교	2,468	2,468,000
		대구대진고등학교	321	321,000
		대륜고등학교	107	107,000
		도원고등학교	85	85,000
		계성고등학교	68	68,000
		영남고등학교	75	75,000
		다사고등학교	55	55,000
		시지고등학교	55	55,000
		대구상업정보고등학교	1,832	1,832,000
		대구공업고등학교	1,633	1,633,000
		대구고부설방송통신고	605	605,000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542	542,000
		대구동부공업고등학교	150	150,000
		경북여자고등학교	2,802	2,802,000
		대구여자고등학교	1,941	1,941,000
		경덕여자고등학교	286	286,000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1,005	1,005,000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363	363,000		
성명여자중학교	6	18,000		
이 사	2001년~2009년	2·28기념사업회 이사	236	48,390,000
총 계			42,914	295,800,000



최첨단 하이테크 벤처기업

(주) 참 테크 글로벌
CHAARMTECH GLOBAL

삼성전자 협력업체, 휴대폰케이스 제조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이사 **이 기 흥**

E-mail : chaarmceo@hanmail.net
http://www.chaarmtech.co.kr
H·P : 010-3535-5941

참기술을 향한 참된 사람들!
True technology! True guys!



대구사업장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 357-54(구, 삼성상용차 부지 내) TEL.053-605-8500 FAX.605-8519
중국사업장 天津市 西青經濟開發區 賽達世紀大道 17號 TEL.022-2388-8181 FAX.2388-8191



Dream Great Bridge 대구은행

지역과 금융을 연결하는 큰 다리가 되겠습니다



- 2009 제10회 감사대상 수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감독원)
- 2009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DRI & 한국표준협회)

- 2009 SRI차수 최상위등급(AAA) 편입 (한국거래소)
- 2009 로하스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 (환경재단)